

2018학년도 수시모집 대비전략

2018학년도 수시모집은 선발 인원이 74%나 되고 지원 횟수가 6회이기 때문에 수시 지원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고 간주해야 한다. 고려대를 포함한 일부 대학은 80%를 넘게 선발하고 수시는 수능 위주의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재학생들은 가능한 적극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수시는 합격하면 반드시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수시 지원 시에는 가고 싶은 대학에 소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대학의 수시모집 요강을 잘 분석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지원전략을 세워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부와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수시에서는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생부 성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학생부 성적과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본인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수능 모의고사 성적으로 정시에 지원할 때 어느 수준의 대학까지 지원 가능한지 가늠해 보고 수시지원 대학을 결정하면 된다.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은 수시에 지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학생부 내신 등급이 수능 모의고사 성적보다 유리하면 적극적으로 수시모집에 지원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대학별 수시모집 요강을 분석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는 것이다. 대학들은 수시모집에서 다양한 전형요소를 활용한다. 수시에서는 학생부를 중심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가장 많은데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두 가지가 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교과 성적이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이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비교과를 포함한 서류와 면접이 중요한 전형요소이다. 서울대를 포함한 상위권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많고, 지방 대학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통해 선발하는 인원이 많다. 한편, 학생부 위주의 전형과 달리 대학별고사로서 논술고사나 적성고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학생부 성적이 다소 좋지 않다고 해도 논술이나 적성고사에 자신이 있다면 지원해 볼 만하다. 서울 소재 대학에서는 논술전형을 통해 선발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다. 수시는 전형 유형에 따라서 준비해야 할 내용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전형 요강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수시에서 많은 대학들이 수능 9등급을 활용하여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부터 영어가 절대평가 되면서 수능 최저가 완화된 효과가 있지만 연세대 논술전형이나 고려대 일반전형 등 일부 대학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수시 지원자들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염두에 두고 수능 공부를 일정한 수준은 해야 한다.